



가정교회 예배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힘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오이코스 전도 대상자

“....기도 하되 하나님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 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골로새서 4장 3절]

NO	대상자명	관 계	구체적 전도방법	영적수준	비 고
1					
2					
3					
4					

수준1) 결신할 수 있음 수준2) 복음에 대하여 열려 있음 수준3) 전도자에 대하여 열려 있음
수준4) 기독교에 대하여 알지만 부정적임 수준5) 기독교에 대하여 전혀 모름

가정교회를 위한 기도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19절]

NO	성 명	기도제목
1		
2		
3		
4		
5		
6		

교회를 위한 기도

1. 한 기홍 목사님 사역과 건강, 가정을 위하여
2. 선교사님들의 GMI 사역과 건강, 가정을 위하여
3. 교회와 사역/행사를 위하여
 - 4차 일천번재 특별 새벽기도회(1/22/2024~10/17/2026)
 - 그룹장 모임(1/3, 신년 하례 감사예배)
 - 신년 감사주일(성찬식, 1/4)
 - 은혜이슬 특별 새벽부흥회(1/5~10, 강사: 담임목사님 외)
 - 아론과 허 중보기도 용사 및 목자 부흥의 밤(1/20)
 - 신년축복성회(1/22~25, 강사: 방재길 목사, 세계로 방주교회)

가정교회 보고서



가정교회 예배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힘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가정교회 예배안 2026. 1. 4

1월 첫째 주: 주님 앞에 자랑이 되는 삶 (빌립보서 2:12-16)

■ Welcome

2026년도 새해 나의 비전/목표를 한 문장으로 나누어 봅시다. 또한 지난 주의 Grace Time을 통해 은혜받은 것 중 하나를 나누어 봅시다.

■ 본문: 빌립보서 2:12~16

12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13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14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15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16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달음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 서론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은 새로운 시작도 아름답게 한다. 성공적인 삶의 가능성도 높아진다. 신앙생활에서도 처음만큼이나 끝이 중요하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그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께 “잘하였다”라는 칭찬을 듣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지난 한 해 신앙의 경주를 돌아보자. 이 경주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자랑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이 끝까지 아름답게 이어져야 한다. 바울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헛수고와 헛된 경주가 되지 않을 수 있는지 분명한 교훈을 준다.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랑할 것이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이 땅에서의 평가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자랑이 되는 삶, 그것이 진정한 승리요 참된 축복이다.

■ 관찰 질문: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해답 1. 믿음을 지킨 것이다.

성도의 삶은 마라톤과 같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이 출발점이며,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종착점이다. 지금 우리는 그 사이를 달리고 있다. 신앙의 경주는 쉽지 않다. 사도 바울은 이를 “선한 싸움”이라 표현했다. 그만큼 시험이 있고, 장애물이 있으며, 방해가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경주를 멈출 수는 없다. 우리는 반드시 천국까지 완주해



가정교회 예배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야 한다. 그 길을 끝까지 달리게 하는 힘은 오직 믿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지불된 구원을 받은 자이다.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게 된다면 신앙생활을 함부로 할 수 없다.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살아가는 것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성도가 가져야 할 태도이다.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향한 경주를 끝까지 달릴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주에서 승리하는 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뿐이다.

바울의 사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였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

(딤후 4:7-8)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나라”

✳ 적용 질문 1

- 1) 한 해 동안 믿음으로 산 것과 그렇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 2) 그것에 대한 열매는 어떻습니까?

해답 2. 사명을 잘 감당한 것이다(12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이,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사명 감당한 것이 큰 자랑이 된다.

*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 이 진리를 분명히 말씀하셨다. 다섯 달란트 받은 종과 두 달란트 받은 종은 분량은 달랐지만 동일한 칭찬을 받았다.

(마25:21, 23)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예할지어다”

주님께서 보신 것은 달란트의 크기가 아니라 충성의 태도였다.

반대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책망을 받았다. 그 이유는 달란트가 적어서가 아니라 아무 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경 어디에도 직분이 있어야 일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또한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은사없이 사명을 맡기지 않으신다. 달란트는 은사이며, 재능이며, 삶의 자리이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은사를 주셨다. 중요한 것은 그 은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며 충성하느냐이다. 사명은 직분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다. 은혜 때문에 감당하는 것이다.

(행 20: 23-24)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은 결박과 환난을 알면서도 사명을 내려놓지 않은 사람의 고백이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다. 은혜가 식으면 사명도 식는다. 은혜가 사라



가정교회 예배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지면 섬김은 의무가 되고, 사명은 부담이 된다. 그러나 은혜가 회복되면 사명은 다시 기쁨이 된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과 달란트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 크고 작은을 비교하지 않고, 보이는 자리와 보이지 않는 자리를 따지지 않고 주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감당한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다.

✳ 적용 질문 2

- 1) 한 해 동안 감당했던 사역들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계기나 감동이나 인도하심, 간증)
- 2) 새해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회복되어야 할 것(은혜)는 무엇인가?

해답 3. 말씀을 세상에 밝히 드러낸 삶을 산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꿈과 비전을 주셔서, 그 소원대로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으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쓰임 받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이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때, 어그러지고 혼란한 세대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된다.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권면한다. 이는 자유를 빼앗는 말이 아니라, 은혜의 무게를 잊지 말라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는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 덕이 되고, 빛이 되는 삶을 살게 된다.

교회는 세상의 양심이다. 세상은 분열과 경쟁으로 가득하지만 교회는 사랑과 화평을 보여 주어야 한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셨듯이,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성도는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녀라는 자랑스러운 신분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나 이 신분은 자유와 함께 책임을 요구한다. 우리는 마음대로 살 수 없다. 교회 안에서 뿐 아니라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가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엡 5:3-4)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리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 적용 질문 3

- 1) 세상에 빛을 비추는 한 해가 되기 위해 삶에서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엡 5:3-4)
- 2) 올 해 어떻게 나는 세상에서 구체적으로 그 빛을 비추는 삶을 살기 원하는가?